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23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도시디자인단	담당자	• 도시디자인팀장 임철희 ☎440-4791 • 담당자 최예진 ☎440-479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국제도시 수준의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 만든다

- 22일, 표준디자인 9차 개발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설치
- 표준디자인 개발 품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천시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 도시 수준의 공중화장실 표준디자인을 개발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2일 시청에서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9차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셉테드(범 죄예방도시디자인)를 적용하고, 사회적 약자(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를 배려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유니버설) 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3년부터 개발해 온 표준디자인의 설치 위치와 품목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유관기관 및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개발한 표준디자인에는 지하철

1호선 안내사인, 흡연부스 표준디자인, 지하도상가 안전디자인,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등이 있다.

인천 시민디자인단 30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인천형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된다.

내년 2월 용역이 마무리 되면,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임철희 시 도시디자인팀장은 “공중화장실은 규모는 작지만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중요한 공공시설물이며 국제적인 관광 도시들의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시설”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며 깨끗한 공중화장실 디자인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착수보고회 관련 이미지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가이드라인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 9차 개발

